

# 23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춘풍의 처 하는 말이,  
 “부모 조업 누만금(累萬金)을 주색(酒色)으로 다 없애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후에 혹시 침채, 길쌈, 방직하여 돈을 모을지라도 그 무엇을 아낄손가?”

춘풍이 대답하되,  
 “자네 말이 내 행세를 믿지 못하니, 이후 주색잡기 앓기로 수기(手記)를 써 줘세.”

지필을 내어 수기를 쓰는구나.  
 ‘모년 모월 모일 수기를 기록하여 전하노라. 이춘풍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누만금을 주색잡기로 다 써버리고, 돌이켜 뉘우치니 후회막급이라. 차일 후로 가중지사(家中之事)를 모두 김 씨에게 맡기므로, 김 씨 치산(治産) 이후로는 누만금의 재산이라도 진실로 김 씨의 재산이요, 가부(家夫) 이춘풍은 한 푼 돈 한 말 곡식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리라. 이후에 또 다시 주색을 밝힌다면 이 수기를 들고 관아에서 판결을 받을 것이라. 증인에 가부 이춘풍이라.’

책명하여 주니, 춘풍 아내의 거동 보소.  
 “수기를 들고 관아의 판결을 받겠다 하였으나, 내 어찌 가장(家長)을 걸어 송사(訟事)를 할손가.”  
 춘풍이 이 말 듣고 수기를 고쳐,  
 ‘이것은 김 씨에게 올리는 수기라. 일후 만약 또 다시 잡기에 빠진다면 진실로 비부지자\*라, 수기를 들고 일을 살피리라.’

하여 주니, 김 씨 받아 함롱에 넣고 이 날부터 치가(治家)를 한다.

침채 길쌈 능란하다. 오 푼 받고 새버선 짓기, 서 푼 받고 새김불 박기, 두 푼 받고 한삼 짓기, 서 푼 받고 헌옷 짓기, 네 돈 받고 장옷 짓기, 닷 돈 받고 도포하기, 엿 돈 받고 천익\* 짓기, 일곱 돈 받고 금침하기, 한 냥 받고 들찌누비, 두 냥 받고 바지누비, 세 냥 받고 긴옷 누비, 넉 냥 받고 관복 지며, 겨울이면 무명나이, 여름이면 삼베길쌈, 가을이면 염색하기, 이렇게 사시장철 주야로 쉴 새 없이 사오 년을 모은 돈을 장변이며 월수 놓아 수천 금을 모았구나.  
 [가] 의식이 넉넉하고 가세가 풍족하여 그럴 것이 바이없다.

이때에 춘풍이 아내 덕에 의복관망 꾸미고 고량진미 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 술로 매일 장취하는구나. 마음이 교만하여 이전 행실 절로 난다.

멍멍거리고 내달아서 호조(戶曹) 돈 2천 냥을 대돈변\*으로 얻어내어 박물관자인 채하고 평양으로 장사 가려 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이 말 듣고 크게 놀라 춘풍더러 하는 말이,  
 “여보시오 서방님, 내 말 잠깐 들어 보소. 이십 전에 부모 조업 탕진하고 그 사이 오 년을 결단하고 앓았다가 물정 어두운데 평양 장사 가지 마소. 평양 물정 내 들었소. 변화 사치하고 분벽사창 청루미색\* 단순호치(丹脣皓齒)\* 반개(半開)하고 고운 노래로 교태하여 돈 많고 허량한 자는 제 세워 두고 벗긴다는데, 평양 물정 이렇다니 부디 장사 가지 마소.”

지성으로 만류하니 춘풍이 하는 말이,  
 “나도 또한 사람이지, 이십 년 전에 패가(敗家)하여 원통하기 골수에 박혔으니 천금진산환부래(千金盡散還復來)\*라 하였으니 넌들 항상 패가할까 속속이 다녀옵세.”  
 춘풍 아내 이른 말이,

“연전에 한 푼 돈도 한 말 곡식도 참견 아니 할 뜻으로 수기 써서 내 함롱에 넣었거든 그 사이 잊었는가. 의식을 내게

믿고, 편안히 앉아 먹고 부디부디 가지 마소.”

[중략 줄거리] 평양에 간 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빠져 호조 돈을 모두 잃고 추월의 집 종으로 일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남장(男裝)을 하고 비장(裨將)이 되어 춘풍을 찾아간다.

“막중 호조(戶曹) 돈 수천 냥을 가지고 사오 년이 되도록 일꾼 상납 아니하니, 호조 관자(關子)\* 내어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는가. 매우 치라.”  
 분부하니, 사령 놈이 매를 들고 십여 대를 중타하니 춘풍의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거늘 비장\*이 보고 차마 더 치진 못하고,  
 “춘풍아, 네 그 돈을 어디다 없앴느냐? 바로 아뢰라.”

춘풍이 대답하되,  
 “호조 돈을 가지고 평양 와서 일 년을 추월과 놀고 나니 일푼도 남지 않고, 달리 한 푼 쓴 일 없습나이다.”

비장이 이 말 듣고 이를 갈고 사령에게 분부하여 추월을 바빠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별태장(別笞杖) 골라잡고,  
 “조금도 사정없이 매우 치라.”

호령하여 십여 장을 중치하고,  
 “이년 바빠 다짐하라. 네 죄를 모르느냐?”  
 추월이 정신이 아득하여 겨우 여쭙오되,  
 “춘풍의 돈은 소녀에게 부당하여이다.”

비장이 대노하여 분부하되,  
 “네 어찌 모르리요. 막중 호조 돈을 영문에서 물어 주랴, 본부에서 물어주랴? 네 먹었는데 무슨 잔말 아뢰느냐? 너를 쳐서 죽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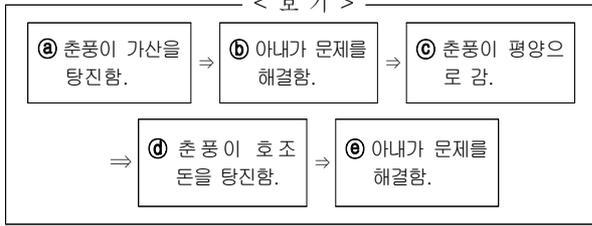
주장대로 지르면서,  
 “바빠 다짐하라.”  
 오십 대를 중히 치며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질겁하여 죽기를 면하려고 아뢰되,

“국전(國錢)이 지중하고 관령(官令)이 지엄하니, 영문 분부대로 춘풍의 돈을 다 물어 바치리이다.”

- 작자 미상, 「이춘풍전」 -

\* 비부지자: 천한 자. ‘비부’는 마음씨가 더럽고 못된 남자.  
 \* 천익: 무관의 공복. 철릭.  
 \* 대돈변: 돈 한냥에 대해 한 달에 한 돈씩 계산하는 이자.  
 \* 분벽사창 청루미색: 아름다운 여자가 거처하는 곳. 기생집.  
 \* 단순호치: 아름다운 여자.  
 \* 천금진산환부래: 많은 돈을 쓰면 다시 돌아옴.  
 \* 관자: 관청에서 발급하는 허가서.  
 \* 비장: 감사. 또는 사신의 일을 돕던 무관.

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와 ㉣는 모두 춘풍의 삶의 방식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 ② 춘풍의 아내는 ㉡의 과정에서 뛰어난 경제적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 ③ 춘풍이 ㉢의 과정에서 호조 돈을 빌린 것은 ㉠로 인해 가세가 기울어 장사 밀천이 없었기 때문이다.
- ④ 춘풍의 아내가 평양 물정을 들어 ㉢를 만류한 것은 ㉣를 염려했기 때문이다.
- ⑤ 춘풍의 아내는 ㉤의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의 과정에서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할 때 [A]의 '수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조선은 남성 가장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가부장제 사회였다. 그런데 「이춘풍전」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경제 체제가 변모하면서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실패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가장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다.

- ① 춘풍이 '수기'에서 아내의 치산을 인정하는 것은 이후 집안의 경제권이 아내에게 넘어갔음을 뜻하는 것이겠군.
- ② 집안을 일으키고자 했던 춘풍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내에게 '수기'를 써 주게 된 것이로군.
- ③ '수기'와 관련해 아내가 춘풍과의 송사를 꺼린 것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④ 춘풍이 아내의 말을 듣고 '수기'를 고치는 모습은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군.
- ⑤ 춘풍이 조상에게 누만금을 물려받았다는 '수기'의 내용에서 경제 체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군.

3.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동과 대화를 통해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 ③ 세밀한 외양 묘사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동들을 나열하면서 사건을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_\_\_\_\_ [A]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 갔다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_\_\_\_\_ [B]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_\_\_\_\_ [C]  
돌아나는 풀썩을 나는 세이고.....

허이언 허이언 구름속에서  
그대는 벼들에 북을 놀리게. \_\_\_\_\_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칠월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_\_\_\_\_ [D]

검은 양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 서정주, 「견우의 노래」 -

(나)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그릇  
언제인가 접시는  
깨진다.

생애의 영광을 잔치하는  
순간에  
바싹 깨지는 그릇  
인간은 한 번  
죽는다.

물로 반죽되고 불에 그슬려서  
비로소 살아 있는 흙  
누구나 인간은 한 번쯤 물에 젖고  
불에 탄다.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  
깨어져서 완성(完成)되는  
저 절대(絶對)의 파멸(破滅)이 있다면,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모순(矛盾)의 그릇.

- 오세영, 「모순의 흙」 -

4.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상의 반전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A]~[D]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공간 개념인 ‘여기’는 시간적으로는 ‘지금’과, 상황적으로는 당면한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지금의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인식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여기’의 의미는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여기’를 기점으로 전반부인 1~4연에서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의미 부여가, 후반부인 5~8연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가 형상화되어 있다.

- ① [A]에는 화자가 이별이라는 현실에 부여한 의미가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B]에는 [A]에서 ‘여기’에 부여한 의미가 변주되어 나타나 있다.
- ③ [C]에서는 현실 상황과 미래에 대한 기약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C]를 통해 ‘여기’가 화자인 견우뿐 아니라 ‘직녀’에게도 해당 하는 현실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D]는 [C]를 변주하면서 미래를 기약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6. <보기>를 토대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유추는 서로 다른 대상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그 유사성에 근거하여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는 사유 방식이다. 우리는 유추를 통해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일상적 대상에서 인간과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해 보게 된다.

- ① 화자는 ‘깨진다’는 대상의 속성과 ‘죽는다’는 ‘인간’의 속성을 대응시키고 있다.
- ② 화자는 대상과 유사하게 ‘인간’도 ‘물에 젖고 불에 타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③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는 화자가 대상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④ 화자는 죽음을 있고 생애에 충실한 대상에서 ‘인간’이 추구할 ‘생애의 영광’을 발견하고 있다.
- ⑤ ‘모순’은 화자가 깨닫게 된 ‘인간’과 삶에 대한 인식을 함축하고 있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래 그 돈은 갚는다는 거야 안 갚을 걱정야? 세도 좋은 젊은 서방을 믿고 그 때세’루 남의 돈을 무죽같이 때떡으려 드나 보다마는, 김옥임이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

원체 예쁜장한 상판이기는 하면서도 쌀쌀한 편이지마는, 눈을 곤두세우고 대드는 품이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을 보던 옥임이는 아니다. 전부터 “네 영감은 어찌 점점 더 젊어가니? 거기다 대면 넌 어머니 같구나.” 하고 새롱새롱 놀리기도 하고, 60이 넘은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 쓸쓸히 사는 옥임이는 은근히 부러워도 하는 눈치였지마는, 밀도 끝도 없이 ㉠ **길바닥**에서 ‘젊은 서방’을 들추어내는 것을 보고 정례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늙은 영감에 너더러가 나거든 젊은 서방 하나 또 얻으려무나.” 하고, 정례 모친도 비꼬아 주고 싶었으나 열을 지어 썼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픽픽 웃는 바람에,

“이거 미쳐나려나? 이건 무슨 객설야.”

하고, 달래며 나무라며 끌고 가려 하였다.

“그래 내 돈을 곱게 먹겠는가 생각을 해보렴. 매달린 식솔은 많구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의 약값이라두 뜯어 쓰려구, 이렇게 쪼렷거리구 다니는, 이년의 돈을 먹겠다는 너 같은 의리가 없는 녀은 욕을 좀 단단히 배야 정신이 날 거다마는, 제 사정 보아서 썩 변리에 좋은 자국을 지시해 바친 밖에! 그것두 마다니, 남의 돈 생으루 먹자는 도둑년 같은 배짱 야 니구 뭐냐?”

오고 가는 사람이 우중우중 서며 구경났다고 바라보는데, 원체 히스테리증이 있는 줄은 짐작하지마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가 나서 대든다. 히스테리는 고사하고, 이것도 빗쟁이의 돈 받는 상투 수단인가 싶었다.

“누가 안 갚는대나? 돈두 중하지만 이게 무슨 꼬락서니난 말이야.”

정례 어머니는 그래도 달래서 ㉡ **뒷골목** 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난 돈밖에 몰라. 내일모레면 거리로 나왔게 된 년이 체면은 뭐구, **우정은 다 뭐냐?** 어쨌든 내 돈만 내놓으면 이리니저러니 너 같은 장래 대신 부인에게 나 같은 년이야 감히 말이나 붙여보려 들겠단년!”

하고 허청 나오는 코웃음을 친다. 구경꾼은 자꾸 꺾어드는데, 정례 모친은 생전 처음 당하는 이런 봉육에 눈앞이 아찔하여지고 가슴이 꼭 메어 올랐으나, 언제까지 이리고 섰다가는 예서 더 무슨 창피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섣뜻 몸을 빼쳐 ㉢ **열의 골** 로 줄달음질을 쳐 들어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없으니 옥임이는 저대로 간 모양이다. 정례 모친은 눈물이 핑 돌았다.

스물 예닐곱까지 동경 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 떤네 하고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을 알까, 아이를 한번 낳아보았을까, 40 전의 젊은 한 때를 **도지사 대감의 살내마님**으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도 하여본 옥임이다. 지금도 어디가 40이 훨씬 넘은 중늙은이로 보이라. 머리를 곱게 지지고 얇은 얼굴 단장에, 번질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맵시가 어느 때 유한마담이지, 설마 1할, 1할 5푼으로 아귀다툼을 하고 어려운 예전 동무를 쫓아다니며 울리는 고리대금업자로야 누가 짐작이나 할까.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 생화’가 되었지마는, 옥임이는 반민자(反民者)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판으로 내세우고 부라퀴같이 덤빈 것이다. 중경 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 회사의 취체역\*인가 감사역을 지냈으니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면, 중풍을 3년째나 누웠는 영감이, 어서 돌아가 주거나 하기 전에야 으레 걸리고 말 것이요, 걸리는 날이면 떠메어다가 정역은 시키지 않을지 모르되, 지니고 있는 집칸이며 땅 십지기나마 **물수를 당할** 것이니, 비록 자신은 없을망정 자기는 자기대로 살길을 차려야 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이였다. 상하 식술을 혼자 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될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 소리를 하지마는 그래야 남의 욕을 덜 먹는 발뺌이 되는 것이다.

옥임이는 정례 모친이 혼쫓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 보라는 듯이 결눈으로 흘겨보고 입귀를 샅룩하여 비웃으며, 버젓이 사람 틈을 헤치고 ㉔ **[종로 편]**으로 내려갔다.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마는, 가슴속이 후련하니 머릿속이고 가슴속이고 무언지 뭉치고 비비꼬이고 하던 것이 확 풀어져 스러지고 회가 제대로 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나 그 뭉치고 비비꼬인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례 어머니에 대한 악감정은 아니었다. 옥임이가 그 오랜 동무에게 이렇다 할 감정이 있을 까닭은 없었다. 다만 아무리 요새 돈이라도 20여만 원이라는 대금을 받아 내려면 한번 혼을 단단히 내고 제독을 주어야 하겠다\*고 버르기는 하였지마는, ㉕ **얼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짧은 서방을 둔 떠세냐 무어냐고 한 것은 구석 없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례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은 늘 하던 옥임이기는 하였다.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거나 샘이 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옥임이도 아니지마는 자식도 없이 군식구들만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굳연히 짜증이 나고, 정례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살림에 얹매고 고생하나, 자기보다 팔자가 좋다고 생각도 나는 것이었다.

- 염상섭, 「두 과산」 -

- \* 떠세 : 재물이나 세력 따위를 내세워 쥔체하고 역지를 쓰는 것.
- \* 생화 : 먹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벌이나 직업.
- \* 취체역 : 주식회사의 '이사'의 옛날 말.
- \* 반민법 : 일제 강점기에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해방 직후에 만든 특별법.
- \* 제독을 주다 : 기운을 꺾어 다시 꿈쩍 못하게 하다.

7.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의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② 극적인 반전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을 바꾸어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교차 서술하여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8. ㉔~㉕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옥임'은 ㉔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만 계속해서 '정례 모친'을 비난했다.
- ② '정례 모친'은 '옥임'을 달래 ㉕에서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 ③ '정례 모친'은 구경꾼들의 시선과 '옥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㉔로 향했다.
- ④ ㉔에서 표현하지 못한 '정례 모친'의 속내가 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되고 있다.
- ⑤ '옥임'은 ㉔로 향하면서 ㉔에서 '정례 모친'에게 했던 행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9. <보기>를 통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두 과산」은 금전적인 이해에 의해 어긋나게 되는 두 여인의 삶을 통해 정신적 과산과 경제적 과산이라는 두 가지 양상의 과산을 그려내고 있다. 그런데 작가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이들의 과산을 초래한 해방 직후의 시대 현실과 사회상에 독자들이 주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①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이나 친구로 지내던 정례 모친에게 '우정은 다 뭐냐?'라고 하는 옥임의 말에서, 둘의 관계가 금전적 이해에 의해 어긋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② 한때 '신여성 운동'에 참여하기까지 했던 옥임이 현재는 정례 모친에게 빚을 갚으라며 '난 돈밖에 몰라'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정신적 과산의 양상이 드러난다.
- ③ 옥임에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는 정례 모친이 오히려 옥임에게 '이거 미쳐나려나?'라면서 나무라는 모습에서, 경제적 과산이 정신적 과산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④ 옥임을 한때 '도지사 대감의 실내마님'이었다가 재산을 '물수를 당할' 처지로 설정한 것에서, 옥임의 과산이 해방 직후의 시대 현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의 상황을 틈타 친일파의 아내였던 옥임이 고리대금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해방 직후의 사회상을 알 수 있다.

10. ㉕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옥에도 티가 있다'더니 정례 모친의 삶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군.
- ② '목구멍이 포도청'인데도 옥임은 한가하게 남의 걱정이나 하고 있군.
- ③ '제 눈에 물대기'라더니 옥임은 남의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군.
- ④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더니 옥임은 그동안 정례 모친에게 하려고 준비해 왔던 말을 실컷 한 것이군.
- 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더니 집안의 일로 짜증이 난 옥임이 정례 모친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군.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에 새 사람이 나단 말  
 꽃 피고 날 저물 제 정처(定處) 없이 나가 있어  
 ㉠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라  
 인연(因緣)을 곳쳐신들 생각이야 업슬소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문  
 열두 때 김도 길사 서른 날 지리(支離)하다  
 ㉡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섞어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곳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에 경물(景物)이 시름없다  
 ㉢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들이켜 풀쳐 헤니 이리 하여 어이 하리  
 청등(靑燈)을 돌려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기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조차 섞어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댕소리 섯도는 듯  
 화표(華表) 천 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어 굽이굽이 끊겼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생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혔어도  
 ㉤ 칠월칠석(七月七夕)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기에  
 [A]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가  
 난간(欄干)에 비겨 서서 님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서른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  
 \* 백마금편: 훌륭한 말과 값비싼 채찍.  
 \* 약수: 전설에 등장하는 강. 부력이 약해서 기러기의 깃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1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임의 화려한 모습을 언급하며 거처를 알 수 없는 입에 대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자연의 변화를 활용하여 입과 헤어져 있는 시간이 길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통해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④ ㉣: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입을 기다리다 시름과 한이 쌓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설화적 인물과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여 입과의 재회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2. 야유원(冶遊園)과 부용장(芙蓉帳)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야유원’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 ‘부용장’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이다.
  - ② ‘야유원’은 입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부용장’은 화자가 입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 ③ ‘야유원’은 입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공간, ‘부용장’은 입의 부재를 느끼는 공간이다.
  - ④ ‘야유원’은 화자가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간, ‘부용장’은 화자가 타인들로부터 벗어난 공간이다.
  - ⑤ ‘야유원’은 입과 이별과 만남을 반복한 시련의 공간, ‘부용장’은 입과 이별한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13.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꿈에나 님을 보려 턱 받치고 기뻔으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셀고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잠시라도 생각 말아 이 시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뻗속까지 사무치니  
 편작(扁鵲)\*이 열이 온들 이 병을 어찌 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앓았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읊으리라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좇으려 하노라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중 -  
 \* 양금: 원앙을 수놓은 이불.  
 \* 편작: 중국 춘추 시대의 명의(名醫).

- ① [A]와 <보기> 모두 화자는 꿈을 통해서라도 입과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 ② [A]와 <보기> 모두 화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입을 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A]와 <보기> 모두 청각적 심상을 통해 입과 이별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보기>의 화자는 [A]의 화자보다 입과 함께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⑤ <보기>의 화자와 달리 [A]의 화자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빠른정답.**

3	1	5	4	3
4	4	4	3	5
5	3	3		

**[1~3] (고전소설) 작자미상, '이춘풍전'**

방탕하고 무능하며 가부장적인 권위로 가득 찬 춘풍과 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현명한 아내와의 갈등을 통해 조선 후기 가부장적 가치관의 변모를 해학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1. [출제의도] 사건의 흐름을 이해한다.**

㉠에서 호조 돈을 빌린 것은 평양에서 장사를 하기 위한 밑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춘풍이 ㉡에서 재산을 모두 잃은 것은 맞지만, ㉢에서 춘풍의 아내가 다시 재산을 모아 경제적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로 인해 가세가 기울 것으로 볼 수 없다.

**2. [출제의도] 자료를 참고해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을 이해한다.**

<보기>를 통해 경제적으로 무능한 가정들이 생기면서, 여성이 집안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등 실질적으로 가정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춘풍은 수기에서 집안의 중대사를 아내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집안의 경제권과 가정으로서의 역할이 춘풍의 아내에게 넘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가]는 춘풍의 아내가 온갖 일을 하며 돈을 모아 가산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관소리 사설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나 있다. 침재, 길쌈 등 춘풍의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의 종류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4~5년 동안 이러한 일을 통해 가세가 풍족해졌다는 말에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6] (현대시) (가) 서정주, '견우의 노래' / (나) 오세영, '모순의 그릇'**

**(가) 서정주, '견우의 노래'**

견우와 직녀의 설화를 바탕으로 이별과 만남의 숙명적인 반복을 하고 있는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통해 사랑의 참된 의미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나) 오세영, '모순의 그릇'**

일상적 사물인 그릇의 속성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유추의 과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4.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1연~4연까지는 '~위하여서는 ~가 있어야 하네'를 반복하며 이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나)는 1연과 5

연에서 '흠이 되기 위하여 흠으로 빚어진'을 반복함으로써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5. [출제의도] 공간적 의미를 통해 시를 감상한다.**

[C]에는 이별이 사랑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현실을 수용하고 있는 태도가 나타나 있으므로 현실과 미래에 대한 기약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6. [출제의도] 유추를 통해 시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 시의 기본적인 발상은 유추에 있다. 그릇의 '깨어짐'과 인간간의 '죽음'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그릇의 순환과정을 통해 '모순'으로서의 삶의 본질을 드러낸다. 2연에서 '생애의 영광'에 해당하는 순간에 그릇이 깨어진다고 한 것이 '인간은 죽는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생애의 영광'을 인간이 추구할 가치로 파악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7~10] (현대소설) 염상섭, '두 파산'**

'두 파산'은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맥락에서 만민특위가 활약하던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해방 직후 남편이 정치 활동을 하는 정례 모친과, 그녀의 친구로서 일제 때 친일 행위를 한 남편을 둔 김옥임의 상반된 삶의 양식을 대비시킴으로써 두 가지 현실 적응의 방식을 보여 준다.

**7.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제시된 지문의 앞부분에서는 옥임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을 당하고 난 뒤의 정례 모친의 내면 심리가 표현되어 있다. 지문의 뒷부분에서는 정례 모친에게 비난을 퍼부은 옥임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을 바꾸어가며 인물들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 [출제의도] 공간적 배경과 관련해 작품을 이해한다.**

㉠에서 정례 모친은 구경꾼들 앞에서 옥임에게 공개적으로 비난당한다. 정례 모친은 옥임을 향해 '늙은 영감에 넌더리가 나거든 젊은 서방 하나 또 얻으려무나' 등의 말을 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남들의 시선을 생각해 그러한 속내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례 모친의 속내는 구경꾼의 시선과 옥임의 비난을 피해 향한 ㉢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은 정례 모친의 심리에 해당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향해 표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9. [출제의도]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이거 미처나려나?'는 정례 모친이 친구 옥임의 지나친 행동을 '달래며 나무라'는 말이므로, 이를 '정신적 파산'으로 해석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다.**

'중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욕을 본 데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 가서 욕을 한다'는 의미이다. 옥임은 돈을 갚지 않는 정례 모친을 혼내려고 했지만 얼떨결에 젊은

서방과 관련해 정례 모친을 비난한다. 이것은 정례 모친이 돈을 갚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에 대한 짜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옥임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애꿎은 정례 모친에게 공연한 화풀이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설다'에서 '새'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서러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11~13] (고전시가)허난설헌, 「규원가」

11.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이해하기

㉠에서 견우직녀는 일 년에 한 번 칠월칠석에라도 만나기 때문에 화자와 동일한 처지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백마금편'에서 임의 화려한 모습을 언급하고 있고 '어디어디 머무는고'에서는 거처를 알 수 없는 임에 대해 걱정하고 원망하는 심정이 드러난다. ②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여 진고'에서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을 달'과 '실솔'에서 계절이 가을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④ '간장이 구곡 되어' 끊어졌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고, 이를 통해 임으로 인하여 마음에 시름과 한이 쌓였음을 알 수 있다.

12.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야유원'은, '새 사람이 나단 말가'에서 집을 나간 임이 새로운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그곳에 머물고 있지 않을까 화자가 추측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부용장'은,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화자가 임의 부재함을 느끼고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야유원은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없고, 부용장은 화자가 벗어나려 하고 있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없다. ② 야유원은 임이 화자를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 아니고, 부용장은 화자가 임을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다. ④ 야유원은 화자가 아닌 임이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간이고, 부용장은 화자가 타인들로부터 벗어난 공간임을 확인할 수 없다. ⑤ 야유원은 화자가 임과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시련의 공간이 아니고, 부용장은 화자가 임과 이별 후에 도피한 공간이 아니다.

13.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감상하기

[A]에서는 '풀 속에 우는 증생', '새소리 더욱 설다'에서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청각적 심상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A]와 <보기> 모두 첫 행에 꿈에서라도 임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② [A]는 마지막 행의 '님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임에게 돌리고 있고, <보기>는 일곱 번째 행의 '님의 탓이로다'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임에게 돌리고 있다. ④ [A]의 화자는 임 가신 데를 바라보며 서러워하고 있지만, <보기>의 화자는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며 임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A]의 화자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지만, [A]에서는 '죽림 푸른 곳에 새소리